



2017년 5월 21일(제824호) 부활 제6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우리는 고이기 이닙니다.

‘고아’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단어에서 연상되는 외로움, 슬픔, 그리고 충족되지 못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참 사랑을 받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지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들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측면에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을 대신 해준 ‘대리부’, ‘대리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조부모가, 때로는 친인척이, 때로는 주변의 의인들이 부모의 역할을 해 주었기에 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던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지금 내 옆에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알기에 힘을 내어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린 아직 어리고 배울 것도, 받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두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호수에서 풍랑에 시달리기도 했고(마르 9,14), 마귀 들린 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마태 14,22)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위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기를 잡으러 갔으며(요한 21,3), 엠마오로 지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루카 24,13)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은 힘을 얻고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더는 보이지 않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같다면 우리는 태생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 약속하신 성령 안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사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한 14,18)”



이거리(디니빌) 신부 백두산(육군 제21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보호송

사도 8,5-8.14-17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1베드 3,15-18<또는 4,13-16>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4,15-21<또는 17,1-11>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진리를 살다

미시진례 인예시의 하느님 말씀(2)

1. 주일과 대축일 : 주일과 대축일 독서는 신·구약 성경의 주요 본문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주일 미사에 3년 동안 빠짐없이 참여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성경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봉독하는 성경 분량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과거 1970년 이전처럼 주일이든 평일이든 언제나 두 독서만, 그것도 한 해 주기로 매년 같은 본문을 봉독하는 독서 제도로 소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7년이란 오랜 연구기간 끝에 3독서, 3년 주기, 조화와 준연속(準連續)의 세 원칙을 세워 성경 본문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1) 3독서 :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항상 세 독서를 봉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제1독서는 구약성경(부활시기에는 예외로 사도행전)을, 제2독서는 신약의 편지를, 그리고 제3독서는 항상 복음을 봉독합니다. 이로써 구약의 약속과 예표가 신약에서 실현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됨을 체계적으로 들려줍니다.

2) 3년 주기 : 독서 주기를 종래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차례는 공관복음(마태오, 마르코, 루카)의 순서에 따라 가해-마태오복음, 나해-마르코복음, 다해-루카복음으로 구성되며, 연도 계산은 해당 연도를 3으로 나누어 1이 남으면 가해, 2가 남으면 나해, 0이면 다해로 합니다. 더 간편한 방법은 해당 연도를 모두 더하여 3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가령 금년이 2017년이라면 $2+1+7=10$ 이고, 이 10을 3으로 나누면 1이 남으니 가해-마태오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 특성이 강하여 그 특성을 살려 따로 독서 연도를 정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특별시기인 사순시기 중반부터 부활시기에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요한복음 6장은 전체 분량이 적은 마르코복음(16장으로 마침)의 해인

나해의 연중 제16주일부터 제21주일까지의 복음으로 정하였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사순 제3, 4, 5주일과 부활과 성령 강림 대축일 사이의 부활 제2, 3, 4, 5, 6주일에 배치하였습니다.

3) 조화와 준연속 : 조화란 제1독서, 화답송 시편 및 복음의 내용이나 주제가 서로 연결됨을 말하며, 준연속이란 제2독서와 복음이 성경 본문의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2독서의 내용은 특별시기나 축일 외에는 제1독서나 복음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2. 축일과 평일 : 축일과 평일 독서 본문은 대부분 주일 독서에 들어 있지 않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독서, 1년 주기(독서는 2년 주기), 준연속의 원칙을 따릅니다.

1) 2독서 : 주일 독서가 제3독서임에 비해 축일과 평일에는 제2독서입니다. 즉 독서 하나와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독서는 복음을 제외한 신·구약 성경을, 복음은 4복음 중에 한 가지를 봉독합니다.

2) 1년 주기 / 2년 주기 : 복음은 1년 주기이지만, 독서는 2년 주기입니다.(홀수 해, 짝수 해) 그러나 특별 시기인 대림, 성탄, 부활 시기의 독서는 1년 주기로 봉독됩니다.

3) 준연속 : 독서와 복음은 각각 독자적으로 성경 본문의 순서를 거의 그대로 이어서 구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행』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행복한 세상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우리는 아니겠지요.

복 음 록 상



상화이야기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모님과 예수님



라피엘로(1483-1520)
1514년 작,
나무 위 유희, 지름 71cm
피티 궁, 이탈리아 피렌체

이 그림은 보는 순간, 감상자들은 따뜻한 색채와 함께 그림에 넘쳐나는 성모님의 애정에 발걸음이 멈춰진다.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포옹하고 있는 자세에 애정이 듬뿍 묻어나고, 아기 예수님을 안은 손과 얼굴을 맞댄 자세에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조용한 그리고 강한 사랑과 애정이 드러난다. 옆에서 이를 두 손 모아 바라보는 아이는 어린 세례자 요한으로, 작은 십자가를 팔에 끼고 있다. 그림의 모양이 원형인 것은 피렌체에서 결혼선물로 원형 그림을 주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림의 주문자가 여성이거나, 가족을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폴레옹 군이 이탈리아 침공 때 이 그림을 가져갔으나, 후에 반환되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그윽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성모님이 우리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든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그림을 우리를 위로해주고 토닥여 준다.



김은혜(갤러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6주일: 성요셉(1군단) 태영원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5월 21일(주일) 11:00

◆ 시제 히게 수련회

때: 5월 23일(화)-26일(금)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